

#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갈보리소식

1.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2.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성찬 위원: 은퇴장로, 12시 30분).
3. 전교인 성경 통독 150일 운동 이번 주 범위는 사사기 7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4. 2여 선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생활 용품이나 의류를 기증받습니다(담당:최희숙 집사).
5. 다음 주일은 권사 기도회 주일입니다. 모든 권사들은 기도에 동참 바라며 4남 선교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부활절 예배 안내입니다. 성금요일 연합예배가 노회 주관으로 3월 30일(금)에 하늘그림교회에서 있으며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오uckland 한인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4월 1일에 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7. 금요 새벽기도회가 5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네팔공동체

**2018년 3월 18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담임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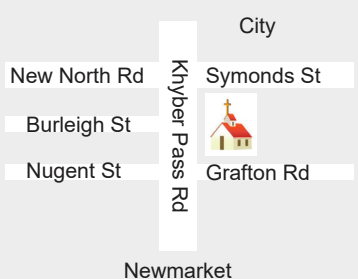
www.calvary.org.nz



### 찾아 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 섬기는 사람들



주일 1부예배	주일 AM11:20
주일 2부예배	주일 PM1:00
청년예배	주일 PM3:15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새벽기도	금요일 AM5:30
유아부	주일 PM1:00
아동부	주일 PM1:00
청소년부	주일 PM1:00

담임목사 : 이 태 한  
부 목 사 : 이 성 철  
부 목 사 : 박 태 신

###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히브리서14:15-16
◎ 찬 송	주 예수 이름 높이어 36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대 표 기 도	정관영 장로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9:17-19
찬양대 찬양	주 예수님 날 위해/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바로 그 십자가/ 이태한 목사
찬 송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현석호장로
성경봉독	마가복음 1:40-45
설 교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이태한목사
찬 송	540장
주 기 도	다같이

3월 교회 사역

3월 4일(주일): 사순절 3  
 3월 9일(금요일): 금요저녁기도회  
 3월 25일(주일): 종려주일(성찬예식)  
 3월 28일(수요일): 공동체 주관 수요예배  
 3월 30일(금요일): 성금요일 연합 예배

3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민경아 집사  
 다음 주일: 김순자 권사  
 다음 주일 청년부: 조주찬 형제  
 3월 28일 수요일: 박후임 권사  
 3월 28일 애찬: 박소진 집사  
 4월 1일 주일: 박일영 장로  
 4월 1일 청년부: 마현정 자매

3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김철재/허영순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유현남/민경아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박희진 자매

금주의 기도제목

1. 기도가 살아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며 영혼 구원에 최우선을 두는 교회가 되도록.
2. 혼탁한 조국 대한민국을 보며 네탓 아니라 내탓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멈추지 않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김광영, 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성도들의 성경 통독 후기입니다.

1. 창세기15:5-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은혜로 다가 온다. 주님과 친해 지길 원한다. 주님의 손을 잡고 별을 보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한다.
2. 오늘 성경 읽기에서 느낀 것은 '거룩한 삶'같네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 읽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네요.
3.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2개가 있었다. 토기장이와 교회. 왜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세우시는 모습에서 토기장이 비유가 생각이 났다. 주인이 한다는데 그릇이 뭐라고 토를 다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에 천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익히 들어 잘 안다.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분별하여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생각해 보는 밤이다.
4.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지금까지 전세계의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까지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워지고 있는가? 15:1절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환상 중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리고는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서 하늘의 뭇별을 보이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셀수 없을만큼 많아 지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15:5~6).  
아브라함은 믿기가 너무 쉬웠을 것 같다. 친히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보여주셨으니 말이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믿는게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에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다. 지식으로는 습득해서 알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가슴으로 받질 못하고 입으로만 "믿습니다"하며 정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신앙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는 지금 듣고있는가! "약속의말씀을 나에게도 주세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겠나이다" 기도가 간절한 심정이다. 이번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식구들이 되시길.....